

천지에는 하루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며
사람에게는 하루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道德經

老子

덕망이 있는 사람

- 仁者無敵, 加高加下, 덕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배려심이 있다.
또한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매사에 사려 깊게 행동한다.
- 仁遠乎哉 我欲仁斯仁至矣

도는 우물과 같다

- 도는 우물과 같아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는다. 또한 깊고 그윽해 거기서 만물이 나온다.

도의 이로움

-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그러나 도를 가르침은 담담해 재미가 없다. 눈을 만족시키지도 못하고, 귀를 즐겁게 해주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롭기로는 끝이 없다.

물처럼 살라

-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이다(上善若水). 물은 만물에 이로움을 주지만 다투는 일이 없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처한다. 그런 까닭에 물은 도에 가깝다.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기는 법

- 훌륭한 장수는 무력을 쓰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 공격하지 아니하며, 맞붙어 싸우지 않고 적을 이긴다. 사람을 잘 쓰는 자는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이를 일러 사람 썸의 능력이라 한다. 이를 일러 하늘과 짝함이라 하는데, 예로부터 내려오는 지극한 원리다.

바른 마음가짐을 지닌 사람

- 발꿈치를 들고 까치발로 서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다리를 크게 벌리고 걷는 사람은 오래 걷지 못한다.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환함이 없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뽐내는 사람은 칭찬받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

진실로 고귀한 사람

- 상덕, 즉 자연스럽게 도를 따르는 사람은 고귀한 품성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도 자신을 고귀하다 여기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를 따르는 사람은 진실로 고귀한 것이다. 그러나 하덕, 즉 도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고귀한 품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그것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에 진정 고귀한 것이 아니다.

진실로 가장 강한 것

-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단단한 것을 녹이고 부술 수 있다.
형태가 없는 것이 틈이 없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로써 나는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안다.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과 무위의 삶의 유익함의 예로
에 세상에서 물을 따를 만한 것이 없다.
- 진실로 강한 것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강함인 것이다.
- 덕은 어질고, 유유하고, 순리적이며 따뜻하다. 그런 까닭에 가장 강한 사람은 덕을 지닌 사람인 것이다. 그렇다. 물과 풀처럼 부드러운 것이 진정 강하다.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덕을 갖춰야 한다.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

-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흘러가게 된다.
- 노자는 이르기를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하는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흘러가게 된다.”고 했는데, 참으로 현명하고 밝은 혜안의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 억지로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든, 자연에게 있어서든 옳지 않다. 그것은 삶의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돼라

-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운 일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 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자신의 본성에 머물라

- 움직이며 뛰면 추위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더위를 이길 수는 없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하지만 추위를 이길 수는 없다.

몸은 움직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고요함이다.
자신의 본성에 머무는 사람만이 이런 고요함을 지킬 수 있다.

세상의 주인으로 사는법

-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려면 세상일에 매여서는 안 된다.
세상일에 얽매어 분주한 사람은 결코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한다.
-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 몽테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힘을 길러라

- 아낀다는 것은 단순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단순한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내면에 온전한 힘인 덕을 쌓는다는 뜻이다. 내면에 온전한 힘인 덕이 쌓이면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없다면 인간적인 모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갖지 않는 것이다.

작은 일도 신중히 하라

- 작은 일이라고 해서 별것 아니라고 얕보면 반드시 큰일을 당하게 된다. 간단한 일이라고 해서 안이한 태도를 취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된다.
- 도를 체득한 사람은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신중하게 대함으로써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 마음의 눈이 밝으면 잘못될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이 커지기 전에 해결하라

- 안정되어 있는 것은 유지하기가 쉽고 겉으로 불거지지 않는 문제는 해결하기 쉽다.
연약한 것은부수기 쉽고, 미세한 것은 흩어버리기가 쉽다.
그러므로 일이 커지기 전에 처리하고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매사에 있어 문제가 보이면 즉각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를 늘 유념해야 하겠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다.

적당할 때 멈춰라

- 가졌으면서 더 채우려 하는 것은 적당할 때 멈추는 것만 못하다.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법

-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삶에 대한 감각을 잃고 인위적인 문명만을 추구한다면 무서운 일을 겪게 된다. 그런 까닭에 소박한 상태에 만족하고 단순한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소박한 상태에 만족하고 단순한 삶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피곤하거나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 진실이 담긴 말은 꾸밈이 없고 듣기 좋게 꾸민 말에는 진실이 없다.
도를 터득한 사람은 따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핵심을 아는 사람은 군말이 없고 복잡하게 이것저것 떠벌이는 사람은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 남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총명한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설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그 이상으로 강한 사람이다.
- “태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대의 그림자를 못 보리라. 고개를 숙이지 마라. 머리를 언제나 높이 두라.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라.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고통의 뒷맛이 없으면 진정한 쾌락도 거의 없다. 불구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된다. 아름다운 것은 내부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빛이다. 그대가 정말 불행할 때 세상에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그대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한 삶은 헛되지 않으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 헬렌 켈러
-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하며,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강한 자가 되고, 인생의 승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다

- 좋은 군대는 도전적이 아니다. 숙련된 투사는 성급하지 않다.
사람을 부리는 것에 능숙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다.
겸손은 무저항의 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천명과 일치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남이 자기를 칭찬하여도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하지 마라.” ----- 탈무드
- “나의 학문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그저 한 방울의 물에 지나지 않다네.” -----

앨버트 아인슈타인

- “검손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자는 인생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論語

孔子

덕이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외롭지 않다

-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주변에 이웃이 있다. (德不孤 必有隣)

즐기는 사람이 돼라

-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知之者 不如好之者 好之者 不如樂之者)
- 즐긴다는 것이 큰 효과를 내는 것은, 즐거움 속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긍정의 에너지가 끝도 없이 분출되기 때문이다.

매사에 신중을 기하라

- 여러 사람이 좋아할 거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며,
여러 사람이 미워할 거라도 반드시 살필 것이니라.
-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해야 함을 뜻한다.

작은 과오라도 절대 숨기지 마라

- 아무리 작은 과오라도 결국에는 다 나타난다. 숨기더라도 늦거나 이르거나 간에 모두 나타나고 만다.

선은 누구에게나 있다

-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 선은 자기 마음속에 모두 지니고 있다.
- 행복에 이르는 길
네 마음을 증오로부터, 네 머리를 고민으로부터 해방시켜라. 검소하게 생활하라. 기대를 적게 가지고 많이 베풀어라. 네 생활을 사랑으로 가득채워라. 빛을 발하도록 하라. 나를 잊고 남을 생각하며 남의 일을 자신의 일과 같이 하라.

썩은 나무와 썩은 흙

-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으며, 썩은 흙으로 쌓은 담은 흙손질을 할 수 없다.
- 삶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다. 자신의 삶이 썩어 녹슬지 않게 하라.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이며 최선의 행복이다.

먼 길을 가려면 천천히 가라

-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급히 달리지 말고 천천히 가야 한다.
- 인생은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기쁨과 고난이 수시로 교차한다. 그런 까닭에 지혜롭게 그 길을 가는 자신만의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급히 먹는 밥에 체하듯 절대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를 마음에 새겨 실천하고 노력한다면, 자신의 가고자 하는 그곳을 향해 잘 가게 될 것이다.

습관이 중요하다

- 사람의 본성은 비슷하지만, 습관이 서로의 차이를 만든다.
- 습관은 제2의 천성(키츠)이며 삶의 질은 당신의 습관에 의해 결정 된다. 부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인 보상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한다.
- 성공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 좋은 습관은 자산과 같다.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꾸준히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게 되기 때문이다.
-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에 목표를 세우고 강인한 신념과 실천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 자산과 같은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라. 좋은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인생의 안내자이다.

향락을 쫓지 말고 젊을 때 부지런히 힘쓰라

- 젊은 시절은 일 년으로 치면 봄이요, 하루로 치면 아침이다. 봄은 꽃이 만발하고 눈과 귀에 유혹이 많다. 이목의 향락을 쫓아가느냐 부지런히 땅을 가느냐에 일생의 운명이 결정된다.

자기반성은 엄중히 하고 다른 사람 책함을 가벼이 하라

- 자기반성은 엄중히 하고 다른 사람 책함을 가벼이 하면 남의 원망이 멀어진다.
(待人春風 持己秋霜)

잘못을 알면 반드시 고쳐라

-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그 또한 잘못이다.

사랑의 진정성을 알고 있는 사람

- 자기 자신을 존중함과 같이 남을 존중하며, 남이 자기 자신에게 해 주기를 원하는 바 그것을 남에게 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 그 이상의 것은 없는 것이다.

성실과 믿음을 갖춰라

- 사람이 誠과 信이 없으면 말과 행동이 모두 허위에 흘러, 도저히 사람의 값을 지니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마차에 비하면 수레바퀴의 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각이 있는 자와 어진 자

- 지각이 있는 자는 맑기가 물과 같으며, 어진 자는 그 마음의 푸름이 산과 같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사람을 움직이고 어진 자는 항상 그 태도가 고요하다. 그러기에 知者는 마음이 즐거우며 仁者는 그 수명이 길다.
- 仁者無敵
- 如鳥數飛

군자와 소인

- 군자와 소인의 구별은 義와 利에 있다. 군자는 주로 의를 존중하지만, 소인은 이로움을 존중하기에 고심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소인을 잘 일러 주어 이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진 참된 군자의 도의심이다.

만족하게 처세하는 법

- 이 세상에 있어서 만족하게 처세하는 길은 정직이나 조금도 구부러지지 않는 길이다. 어디까지나 바르고 깨끗한 마음을 간직하여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허위와 행동을 할수록 禍를 당하여 죽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니, 삼가 허위의 행동을 자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 세르반테스
- 정직은 가장 확실한 자본이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無信不立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 過猶不及
- 傍若無人，眼下無人

자기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라

- 참으로 완전한 것은 하늘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자기완성 즉 하늘의 법칙을 깨닫기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자기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성인이다. 성인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 그는 선을 찾아내고 그 선을 잃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군자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

- 군자는 눈앞의 이익이나 명성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평생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긴다. 자신의 뜻이 아무에게도 전해지지 않고 생이 끝나버리면 아무리 풍족한 생활을 누렸을지라도 그 삶을 후회한다.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일이 하고 싶어진다

-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일만 하기란 힘든 일이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좀 더 좋은 일이 하고 싶어지는 법이니 그대로만 해 나가면 된다.
-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하라’ ----- 경주 만석꾼 최부자
- ‘선을 베풀면 선으로 돌아온다’.
- “자선은 아무리 베풀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 “이 세상의 참다운 행복은 남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기 때문이다.”

孟子

孟子

仁義禮智를 갖춰라

-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의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仁의 시초요,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義의 시초요, 사양하는 마음은 禮의 시초요, 옳고 그르게 여기는 마음은 智의 시초다.
- 맹자의 四端：惻隱之心，羞惡之心，辭讓之心，是非之心

大人과 小人의 기준

- 마음을 어질게 가지면 대인이 되고 어질지 않으면 소인이 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지극히 정성을 다하라

- 至誠을 다하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없다.
-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실현되도록 도와준다.
- 至誠感天

大丈夫다운 행동

- 부귀를 누려도 방탕하지 말 것이며, 비천해도 지조를 버리지 말 것이며, 싸움터에서 굴하지 아니하면, 이는 곧 대장부다운 행동이라 하겠다.

子路和 禹임금

- 공자의 제자 자로라는 이는 남이 허물이 있음을 알리어 주면 기뻐했고, 우임금은 착한 말을 들으면 절을 했다.
- 자로는 도량이 한없이 넓고, 우임금은 지극히 겸손했다. 자로와 우 임금과 같은 마인드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좋은 인격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을 낮추고 겸허히 해야 하는 것이다.

멀리서 찾지 마라,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헛되게도 멀리서 찾고 있다.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시작을 하지 않고 미리 어렵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놓치는 것이다.

먼저 자신을 바르게 하라

- 자기의 길을 굽혀서 부정을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부정을 고쳐준 예는 아직 없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 “ 마음을 고요하고 안정된 흐름 속으로 흘러가게 하라. 욕망에 넘어가지 말고 욕망을 지배하는 자가 되라.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행동을 다스릴 수 있다. 행동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은 진실하고 영원한 깨달음의 빛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땐 자신의 길로 걸어가라

-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아 그르지 않다고 생각할 땐 천만인이 가로막더라도 그대로

그 길을 가라.

- 堅忍不拔 : 참고 견디어 흔들리지 않는 것.

구하는 자와 버리는 자

- 구하는 자는 利를 얻을 것이며, 버리는 자는 이를 잃을 것이다. 이는 스스로 구하여 얻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구함에는 道理가 있고 天理가 있다. 때문에 이를 얻기 위하여 다만 이익에만 눈이 어두우면 참다운 이익을 얻지 못한다.

근본에 대해 말하다

- 천하의 根本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몸에 있다.
-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 뿌리가 탄탄한 것처럼 삶의 기초가 튼튼할 때 좋은 결과를 이룸으로써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법

- 사람을 사랑하되 친해지지 아니하거든 그 仁을 반성케하고, 사람을 다스리되 다스려지지 아니하거든 그 지혜를 돌아보고, 사람에게 禮를 하되 대답하지 아니하거든 그 공경함을 돌이킬 것이니 돌이켜 보아도 얻지 못하거든 또 한 번 돌이켜 구하라. 그리하면 돌아올 것이다.
- 타인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1. 친절하게 행동하라.
 2. 진정성을 보여라.
 3.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한다.
 4. 상대를 배려하라.
 5. 격려하라.
 6. 먼저 미소를 지어라.
 7. 선물을 하라
-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자신이 먼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남이

시기와 질투를 금하라

- 시기와 질투는 언제나 남을 쏘려다가 자신을 쏘게 된다.
- 水魚之交 : 물과 물고기의 관계처럼 아주 친밀해서 떨어질 수 없는 사이.

道는 가까운 데 있나니 멀리서 찾지 마라

- 도는 가까운 데 있음에도 먼 데서 구하여, 일이 쉬운 데에 있거늘 어려운 데서 구하나니, 사람이 그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섬길 줄 알면 반드시 평화로운 세상을 이룰 것이다.

좋은 일을 행하면 모두를 감동하게 한다

- 남이 하지 못하는 좋은 일을 내 스스로 끝까지 행하면 능히 감동시킬 수 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 수많은 작은 실수가 커다란 성공을 이끌어내는 법이다.
- 실수와 실패에 절대 좌절하지 말고, 성공의 에너지로 삼을 때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

맹자의 선택

-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며, 義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차라리 의를 취하겠다.
-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마태 5, 6)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 5, 10)

五穀은 익어야 제맛이다

- 오곡은 종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만, 익지 아니하면 피만도 못하다.

상대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지를 살펴보라

- 그대가 훌륭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가진 덕을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리고 나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자기에게도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
- 他山之石 :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의 구슬을 가는 데 소용이 된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일지라도 자기의 지덕(知德)을 연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마라

- 天災는 피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불러들인 재앙을 피하여 살 수는 없다.

비판을 삼가라

-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사는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 비판을 삼가고 그 사람의 장점을 들어 칭찬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이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부귀를 누려도 방탕하지 말 것이며, 비천해도 지조를 버리지 말 것이면, 싸움터에서 굴하지 아니하면, 이는 곧 대장부다운 행동이라 하겠다.

莊子

莊子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라

- 사람마다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모든 행동은 하나로 통일된다.
그러므로 그 행동은 흐트러지지 않는다.
- 精神一到何事不成

인생을 밝히는 등불, 노력과 배움에 충실하기

- 아무리 작은 것도 만들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아무리 총명하더라도 배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다. 노력과 배움 이것 없이는 인생을 밝힐 수 없다.
-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 장자크 루소
- 不恥下問
- 螢雪之功
-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 탈무드
- 배움이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빛과 소금과 같다. 배움을 어느 일정한 기간만 배우는 것이 아니다. 평생을 배워도 부족한 것이 배움인 것이다.

무엇이든 정도에 알맞게 하라

- 알맞으면 복이 되고 너무 많으면 해가 되나니 세상에 그렇지 않은 것이 없거니와 재물에 있어서는 더욱 그것이 심하다.
- 過猶不及

是는 非가 되고 非는 是가 된다

- 어떤 것이라도 그 보는 처지에 따라서 이룰 수도 있고 저룰 수도 있다. 是非나 善惡의 의론은 있어도 처지를 바꿔보면 시는 비가 되고 비는 시가 된다.

- 易地思之

참된 마음을 나오게 하는 법

- 음악 소리는 피리건 종이건 모두 그 빈 곳 공허에서 나온다. 사람의 마음도 비우지 않으면 참된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
- 참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수시로 기도와 묵상, 휴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쌓인 온갖 때 낀 마음을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 텅 빈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평화로운 마음을 갖게 된다. 이 평화로운 마음이 곧 참된 마음인 것이다.

이름에 걸맞은 가치를 지녀야 한다

- 이름이라는 것은 손님이다. 이름과 實은 주인과 손님의 관계에 있다. 손님만 있고 주인이 없어도 안 되는 것 같이 이름만 있고 실을 갖추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 "나이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에이브러햄 링컨
- "포기해도 되는 시기란 없다. 항상 도전할 때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고난을 겪으면 이내 알게 되는 것

- 이해관계로 서로 맺어진 자는 일단 고난이나 재해 같은 난처한 일 겪게 되면 곧 상대를 버리게 된다. 천연 자연으로 맺어진 골육이나 동지는 고난이나 재해를 당하면 더욱 서로를 돌보고 하나가 된다.

인내하라, 그러나 분노를 금하라

- 인내함으로써 성사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분노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만이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 인내는 재능과 좋은 여건이 낼 수 없는 생산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 堅忍不拔
- "분노는 한때의 광기다. 분노를 누르지 않으면 분노가 당신을 누르고 만다."
----- 호라티우스
-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 잠언
- "분노는 무모함으로 시작해 후회로 끝난다." ----- 소크라테스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한 생각을 해야 한다

- 사람이란 하루라도 착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일어난다.
- 德不孤必有隣, 愛民思想, 一日一善

인생에서 마흔이라는 나이

- 마흔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고난의 파도를 헤치며 자신을 승화시키도록 하자.

수양을 쌓아야 하는 이유

- 사람이 수양을 쌓을수록 뜻과 이상이 크고 識見이 밝아서 충성스럽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위선자에 대한 심판

- 사람이 착하지 못한 일을 하고도 그 이름을 세상에 날려 이 세상에는 다시 둘도 없는 사람인 체하며 갇은 그릇된 행동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비록 별하지 못할 지라도 하늘이 반드시 벌을 주는 법이다.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

- 성인의 도에 통달한 자는 곤궁하면 그 곤궁을 즐기고 처지가 뜻대로 되면 그것 또한 즐긴다.
- 無爲自然 은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으로 노자의 중심사상의 본질이다.

사람을 판단하는 법

-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그 사람의 평판을 듣는 것보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성인의 용기를 지녀라

- 크게 어려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인의 용기다.
-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다. 이럴 때 몸과 마음을 다스려, 흔들리지 않는 確乎不拔의 정신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다

- 작은 주머니에는 큰 것을 넣을 수 없다. 짧은 두레박줄로는 깊은 우물의 물을 퍼 올릴 수가 없다. 이처럼 그릇이 작은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다.
- 삶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롭게 하고, 사회를 이롭게 함으로

써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 사람들은 대개 남의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 예민하게 군다. 그것은 자신이 억울하게 공격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로부터 자극받지 않으려면, 귀로 들으려고 하지 마라. 마음으로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마음을 차분히 다스려라.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감정을 절제하게 되고 외부적인 이야기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
- 쓸데없는 만들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이때 귀를 닫아걸고 들을 것만 듣고, 버릴 것은 다 버려라. 그리고 마음으로 듣는 일에 익숙한 당신이 돼라.

사귀에 있어 군자와 같이 행하라

- 군자의 사귀는 맑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귀는 단술과 같다. 군자는 맑음으로써 친하고, 소인은 단술로써 끊어진다.
- 군자는 매사에 말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소인은 매사에 말이 많은데 정작 들을 말은 없다. 군자는 말을 극도로 자제하되 행동으로 말을 대신한다. 하지만 소인은 말은 많은데, 쓸 말은 별로 없는 쪽정리와 같다.
- 군자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넉넉하고, 소인은 함께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부족함을 느낀다.

탐욕스러운 자와 교만한 자

- 탐욕스러운 자는 재산이 쌓이지 않으면 근심하고, 교만한 자는 권세가 커지지 않으면 슬퍼한다.
- 욕망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다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야고보서 1-15
-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도록 힘쓰라. 곧바로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과 아울러 행복을 얻게 될 것이다." ----- 에픽테투스
- 자신이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나친 탐욕을 멀리해야 한다. 탐욕은 스스로를 망치는 요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름답고 좋은 일과 나쁜 일

- 아름답고 좋은 일을 이루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나쁜 일이란 그것을 고칠 여유도 없이 곧 다가온다.

菜根譚

홍자성

훌륭한 德望家

- 높게 처하려면 말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겸손해야 한다. 사람들을 인도하려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해야 한다.

지나친 물욕을 경계하라

- 사람 마음 속에 망상과 번뇌가 가득함은 물욕으로 인한 것이다. 만일 마음속에 물욕이 없다면, 마치 가을 하늘과 같고 날씨 좋은 날의 바다와 같다.
- 小貪大失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라

- 사나운 바람과 성난 빗줄기에는 새들도 근심하고, 활짝 갠 날씨와 따뜻한 바람에는 초목도 기뻐하고, 천지에는 하루도 온화한 기운이 없어서는 안 되며, 사람에게에는 하루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
- 스스로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마음의 문을 길러야 한다. 작은 일에서 즐거움을 얻는 일에 익숙해질수록 행복의 지수는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로운 법이다

- 귀는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듣고 마음은 항상 마음속에 어긋나는 일만 있다면, 진실로 몸과 마음을 닦는데 날이 잘 서는 솜돌이 된다. 반대로 들리는 말마다 달콤한 말 뿐이고, 일마다 마음이 충족하다면 이것은 오히려 내 몸에 해로운 일이다.
- 양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

마음 속에서 만족해야 진정한 행복이다

- 행복은 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행복은 누구의 손에든지 잡힐 만한 곳에 있다. 불행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마음속에 만족을 얻지 않으면 행복을 얻을 수 없다.
- 대개의 사람은 크고 멋진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행복은 고사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진정으로 행복하고 싶다면 큰 것(멀리에서)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 주변 가까이(작고 소소한 것)에서 찾으려 해야 한다. 그래야 더 자주 더 크게 만족하게 됨으로써 행복한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군자의 품격

- 천지는 광대무변하고 적막하며 조금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군자는 한가한 가운데에도 급한 일에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다망한 때라도 여유자작한 작태를 지닌다.

그 어느때라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 귀는 고운 소리를 듣고, 눈은 아름다운 빛깔을 본다. 하지만 눈과 귀는 밖에 있는 도둑이다. 그리고 속에 있는 욕심이나 야심은 안에 숨어 있는 도둑이다. 그러나 우리의 본심만 깨끗하면 그 도둑들은 얼씬도 하지 못한다.

사람을 대하는 바람직한 자세

- 남을 해코지할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남의 해코지를 막으려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 이는 생각에 소홀함이 있어 경계하는 말이다. 차라리 남에게 속을지언정 남이 나를 속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은, 지나치게 살피다가 잘못되는 일이 생길까 하여 경계해 이른 말이다. 이 두가지 말을 염두에 두면 사람 보는 눈이 밝아지고 인품이 원만해질 것이다.

자신의 인격을 높이는 처세술의 지혜

-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앞을 다투어서는 안 된다. 언제나 항상 한 걸음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인격을 높이는 것이며, 자연히 남보다 높은 지위에 있게 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할 걸음 물러선다는 것은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잘되는 이유

- 어진 사람은 마음이 너그러워 복이 많고, 좋은 일도 오래가며 하는 일마다 너그러워 여유 있게 이루어 간다. 그러나 마음이 천박한 사람은 생각이 좁고 급하므로 복이 박하고, 은택도 짧아서 하는 일마다 웅졸하고 불유쾌한 일이 많다.

도덕을 지키는 자, 권세에 아부하는 자

- 도덕을 지키는 사람은 한때 적막하고, 권세에 아부하는 자는 만고에 처량하다. 통달한 사람은 물질 밖에서 물질을 관찰하고, 욕심이 떠난 뒤 자신을 생각한다. 차라리 한때의 적막을 겪을 지언정, 만고에 처량할 길을 따르지 않는다.

감정으로부터 벗어나라

- 감정이 격하면 매사를 바르게 느낄 수 없다. 또한 감정이 열처럼 높으면 마음이 어두워지니, 옳고 그른 것과 선악을 판단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감정이 격할 때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하며 감정이 열처럼 높아지면 마음을 차게 식혀야 한다.

역경에 실망하지 말고 행운에 도취되지 마라

- 아무리 기쁜일만 있는 사람이라도 그 반면에 반드시 근심이 있는 법이다. 가난할지라도 아껴쓰면 곤란을 면할 수 있고, 병에 걸렸을지라도 건강을 잘 살펴 행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떠한 괴로움일지라도 그뒤엔 기쁨이 따르지 않는 일이 없으니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역경에 실망하지 않고 행운에 도취하지 않는다.
- 興盡悲來
- 苦盡甘來

마음을 겸손히 하라

- 마음을 겸손하고 허탈하게 가져야 한다. 마음이 겸손하고 허탈하면 곧 의리라는 것이 들어와 자리 잡는다. 마음속에 의리라는 것이 들어와 자리 잡으면, 자연 그 마음속에 허욕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

권세와 공명을 탐하지 마라

- 권세와 공명은 누구라도 탐내는 것이며 영화는 모두가 부러워한다. 그러나 이런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은 결백한 사람이다. 또 권모술수는 세상을 속이고 사람을 농락하는 것으로 이것을 알고도 마음 속에 두지 않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진흙 속에서도, 진흙 물에 물들지 않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평범한 일에 있다

- 진기한 것을 좋아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깊고 큰 뜻이 없다. 세상에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신기하고 묘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평범한 일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입에 좋은 것과 재미있고 상쾌한 일

- 입에 맞는 음식은 모두 창자를 해하고, 뼈를 썩게 하는 독약이니 반만 먹어야 뒤탈이 없다.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일은 모두 몸을 망치고, 덕을 잃게 하는 매개체이니 절반쯤 즐긴다면 후회가 없을 것이다.
- 過猶不及 :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
- “자신을 節制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착한 일과 악한 일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 착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 보답이 없는 수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단호박 같이 남모르게 풀 속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이니 언젠가는 보답이 있을 것이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 죄과를 받지 않는 것 같으나, 그것은 마치 뜰 앞에 쌓인 봄눈

과 같아서 어느 땐가는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 因果應報, 吉凶禍福

무슨 사업을 하든지 도덕적으로 하라

- 어떤 사업을 하든지 도덕적으로 단단한 토대를 삼지 않고도 성공한 사업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때의 성공일 뿐 곧 무너진다. 그것은 마치 주춧돌이 단단치 못한 데 세워진 기둥과 석가래가 튼튼하게 오래 부지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가정을 잘 꾸려가는 두 가지 법칙

- 가정을 지키고 잘 꾸리는 데에는 두 가지 훈계의 말이 있다. 첫째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집안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이 골고루 미치면 아무도 불평하지 않는다. 둘째는 낭비를 삼가고 절약해야 한다. 절약하면 식구마다 아쉬움이 없는 법이다.